

# 道북부 수도방위 핵심축 '국가유적 0순위'

## 경기 문화유산을 찾아서

>18< 북한산성과 총융청 '유영'

조선 조정은 임진왜란에서 혼쫓이 난 다음, 수도방위체제가 허술했던 사실을 통감한다. 그리하여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진관체제에서 5군영 중심의 수도방위로 국토방위체제를 바꾼다. 5군영에서 훈련도감·어영청·금위영은 수도를 직접 방어하는 중앙군영으로 '삼군문(三軍門)'이라 일컬었다. 그리고 총융청과 수어청은 수도 외곽의 방어를 담당했다. 즉 삼군문은 수도 한양을 전담하고, 총융청과 수어청은 수도를 둘러싸고 있는 경기지역의 방어를 맡았던 것이다.

1711년(숙종 37년) 11.6km에 달하는 북한산성의 축성은 삼군문이 주축이 돼 이뤄졌다. 삼군문은 축성이 끝난 뒤 산성 관리를 맡게 된다. 각 군문이 축성한 지역을 관리구역으로 그대로 이어받았는데, 산성 내 지휘소인 유영(留營)을 설치해 이를 중심으로 산성 관리와 수비를 해 나갔다. 한편 북한산성 축조 이후 그곳의 전반적인 관리는 경리청(經理廳)이 맡았는데, 1757년(영조 33년) 총융청이 이관 받아 북한산성을 중심으로 경기 북부 수도의 외곽 방어를 담당하게 된다.

북한산성에는 삼군문의 파견부대였던 유영 3곳이 모두 남아 있다. 그 중 규모가 가장 크고, 보존 상태가 제일 좋은 훈련도감 유영은 노적봉 아래에 위치하고

### 임란후 5군영체제로 군제 개혁

### 수어청을 제외한 4군영 한자리

### 삼군문 파견부대 유영3곳 위치

있다. 원래는 대청 18칸·내야 8칸·양곡창고 60칸·무기고 16칸·중군소 4칸·낭청소 5칸·서원청 5칸·구류간 3칸·행각 11칸 등 총 130칸의 건물이 있었다. 여기서 죄지는 사람을 잠시 구금하는 구류간이 있었던 사실이 흥미롭다. 현재 남아 있는 건물은 없으며 총 길이 200m·높이 7m에 이르는 긴 석축과 각 건물에 사용됐던 주춧돌·기단석·대석·우물·연못자리



훈련도감 유영의 일부본(왼쪽)과 '북한지' 속 금위영·어영청(오른쪽). /경기문화재단 제공

등이 남아 있다. 북한산성은 조선시대 수도방위체제를 맡았던 5군영 중 수어청을 제외한 4군영이 자리했던 곳이며, 어영청 유영을 빼고는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다. 그런데 이들 모두는 현재 미지정문화재이고, 제대로 된 학술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. 그 탁월한 가치에 비해 무관심 그 자체였던 셈이다. 희소 가치로 따지자면 북한산성 행궁보다 못할 것도 없으며, 경기도 소재 건물유적 중 국가지정 예비후보 1번이라 할 수 있다. 체계적인 학술조사가 이뤄지고, 이를 바탕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길 간절히 바란다.

북한산성과 남한산성은 수도외곽 방

어체제의 두 축이었다. 북한산성의 총융청은 경기북부를, 남한산성의 수어청은 경기남부를 맡아 방어했다. 왕도 방위의 왼팔과 오른팔이었다. 5군영 체제에 포함됐던 북한산성은 수어청이 자리했던 남한산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. 그리고 북한산성에는 5군영 중 훈련도감·어영청·금위영·총융청 유영이 모두 자리했다.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은 북한산성이 남한산성, 한양도성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야 함을 역설한다.

